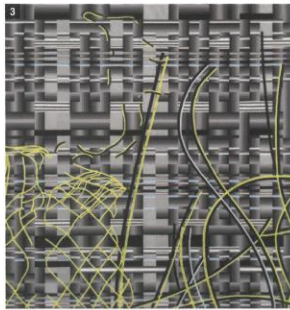


DESIGN & EXHIBITION



함경아 개인전



01. 유령 그리고 지도, 시 01WBLO1VT, 2018-2024, 140×326.6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02. 유령 그리고 지도, 시 03WBXS01, 2018-2024, 66.1×101.1×5.1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03. 유령 그리고 지도, "나는 사진으로 왔니 아니면 기차 타고 왔나?" 2408S01, 2024, 114×130×4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04. 유령 그리고 지도, "나는 사진으로 왔니 아니면 기차 타고 왔나?" 2408SS013T, 2024, 185.4×72.8×2.7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유령 그리고 지도

문의 국제갤러리 02-735-8449 www.kukjegallery.com
사진 신병철 |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는 8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K1, K3 및 한옥에서 함경아 개인전을 개최한다. <유령 그리고 지도>라 명명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세 개의 악장으로 꾸려 공유한다.

'유령'이란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모든 지시와 욕망을 환영으로 치환해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함경아 작업 전반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개념어로 자리 잡은 표현이다. 지난 2015년 국제갤러리 전시 <Phantom Footsteps(유령 발자국)>에 이어, 이번 전시는 그 발자국들이 그리는, 즉 실체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사이를 끝없이 횡단하며 작가가 그려나가는 세계(지도)를 선보이고자 한다.

K1에는 함경아의 '자수 프로젝트' 작품들이 소개된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그의 자수 프로젝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폭발 버섯구름 사진을 흑백의 자수로 번안하는 등 그 모티브의 선택에서부터 여러 층위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왔다. 그 제작 과정 또한 이 사회의 다양한 차원을 아우른다.

작가가 디자인한 자수 도안은 중개인을 거쳐 복한의 수공예 노동자들에게 전달된다. 다시 제3자를 통해 자수의 형태로 작가에게 돌아오고, 이 자수 파편을 갈무리해 그 위에 손수 자수를 더하는 등 작품을 완성해 캔버스에 엮는다. 작가에게 자수란 오늘의 물리적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만 소통 가능한 대상과 가장 아날로그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앞선 전시장에서 자수 작품들 속의 추상 언어가 한옥 전시장에서는 마치 그 위에 눈물이라도 맺힌 듯 번지는 듯한 모양새의 패턴으로 형상화된다. 손자수 뿐 아니라 매그놀리아 에디션즈(Magnolia Editions)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태피스트리 작품들과 함께 꾸러지는 한옥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매체로 가장 회화적으로 수 놓인 천과 천 사이를 거닐게 된다.

작가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가상세계 속의 소통과 현실 속 아날로그적 소통 간의 괴리 및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게 된다. 무엇이 진정한 실체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오히려 개인의 감정을 만난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상의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 자극 및 정보와의 화학작용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감정만큼은 더 원시적으로 증폭되어 간다는 것이다. 다양한 패브릭의 리본테이프로 엮은 K3의 작품들은 이 두 가지 영역 내지는 차원이 충돌하는 오늘날의 세상에 대한 작가의 추상적 초상인 셈이다.